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추** 석 이후 돈육소비 감소와 계절적인 공급증가 시기를 맞아 초강세를 유지하던 돈가가 하락세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산돈육에 대한 강한 소비 선호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 이번 추석경기에서 나타났듯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공급도 예년에 비해 그다지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돈가 하락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3/4분기에 750만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에 비해 아직도 크게 감소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된데다, 추석 이후 돈육 비수기에 접어들어 재고처분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요처 확보를 위한 할인판매와 심지어 둔갑판매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약세에 접어들게 될 국내 돈육시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출시장은 돈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엔화 강세로 수출채산성 및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고, 돈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접어들면 수출업체의 수출작업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지육 kg당 3,000원대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듯

기에 사료생산량도 예년의 월간 46~48만톤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45만여톤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인 공급 증가 외에 본격적인 공급기반의 확대 조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최근까지도 전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료 생산량 추이는 이러한 공급 부족현상이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10월의 돈가는 수입돈육시장의 동향에 따라 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돈육은 그동안 마땅한 수요기반을 구축

이러한 시장요인을 볼 때 10월의 돈가는 3,000원대의 벽은 유지한채, 지육 kg당 3,000~3,1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제에는 국내산 돈육의 소비와 가격유지를 위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수입돈육 불법 유통단속이 요망된다. 특히나 이번 기회는 수입돈육과 차별화된 유통, 소비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대대적인 대책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양돈**



**돈** 육 소비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출하두수 및 생체중이 증가되지 않아 당분간 돈가는 9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 출하두수가 40,000두 수준을 유지한 9월이 예년과 달리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된 것도 고돈가를 유지하게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출량의 감소와 수입육 재고 과다가 어느 정도 돈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고기 시장의 정착이 상시 필요두수를 요구하는 현 국내 돈육 소비 구조하에서는 수입 및 국내산 냉동육 재고와 무관하게 돈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판단된다. 이는

늘지 않더라도 현 상시두수의 생체중 증가, 계절적 출하량의 소폭 증가가 주 요인으로 전월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햄, 소세시 MAKER들의 연말 선물 SET용 원료 확보 시기가 전년보다 1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후지 수출량의 감소와 수출 규격 변경으로 인한 육가공 업체의 채산성 악화, 미국 돈가 폭락 가능성 등이 국내 돈가를 지지하는 생고기 시장 정착이라는 버팀목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돈육 수입자유화 이전보다 현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 10월 지육가 3,000~3,100원/kg 예상

미국의 돈육 시장 구조와 유사하다. 즉, 미국 내 냉동육 재고가 27만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생육 소비 활성화로 돈가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의 경우, 변수가 있다면 생육 소비 감소 혹은 외부에서 생육을 대체할 수 있는 CHILLED MEAT의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 생고기의 가격 하락 징후가 나타난다면 국내 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돈가는 3,000원/kg~3,100원/kg으로 전망한다.

모든 사료지수에 의한 출하 예상량이

양돈 경영 여건이 고돈가로 인해 개선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돈육 수입의 과다로 인해 중·소규모의 수입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국내시장에 덤핑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일본지역으로 수입 돈육을 수출하는 상태이므로, 수입자유화 4년차가 되는 2000년부터는 막무가내식 수입은 사라지고 안정, 적정 수입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돈육 과다로 인한 국내 돈가 영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 돈가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한국 양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양돈**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국** 내산 돼지고기 시장과 수입돼지  
**국** 고기 시장이 극심한 희비를 나  
타내고 있다. 올 들어 특이한 사  
향은 수입육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이다.

국내산의 경우 산지 물량부족 현상  
이 한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가격 역  
시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유통시장에  
서도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 및 가격은 예  
년만큼은 안되더라도, 지난 97년 정도로 회  
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과다하게 수입된 수입육은 빠  
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

신 파동을 이유로 들고 있는 수입육 소비위  
축은 단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극심한 재고 소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주로 덴마크산으로 국내 수입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격 역시 kg당 4천2  
백~4천5백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서는 덴마크산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돼야  
수입육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정도다.

덴마크산 수입 오판상이나 대형 유통업  
체들도 수입량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아예  
선적을 내년으로 넘기는 등 다각적인 방안

## 국산 냉동, 수입육 재고누적 가격영향 우려

입육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극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육으로 인한 국내산 가격하락 예상  
은 현재까지 빚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육은 항상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수입육은 10만톤을 넘  
어서고 있다. 올 초 예측했던 10만톤이 앞으  
로 4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수입됐다.

결국 수입육 유통시장은 수입업체들의  
자충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던 상황을 반영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난 6월 초 다이옥

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  
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국가에서 수입되는 브랜드는 덴  
마크산보다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사정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수입육의 유통활성화가 어느 정  
도 되지 않고, 소비악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올 연말이내 국내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산 역시 유통 및 소비에 있어서도  
소비자 가격 저항선까지 차고 올라간 상태  
여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  
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양동**